

## 원희룡 장관 “철도안전 신뢰회복을 위한 코레일의 전면 혁신 강조”

### - 안전강화조치 이행 확인차 작년 11월 무궁화호 탈선사고 현장 방문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5일 오후 2시 영등포역을 찾아 작년 11월 무궁화호 탈선사고의 후속조치 현황을 확인하였다.
- 원 장관은 먼저 3월 1일부터 새롭게 1시간 가량의 낮 시간대 선로 작업시간을 확보한 서울역~금천구청역 구간에서 코레일 작업자의 현장점검 내용을 확인하고,
  - “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한 낮 시간대 작업시간을 확보하여 미세 균열, 표면 결함 등을 상세히 점검하고, 분기기와 같이 파손 위험이 높은 중요 시설은 선제적으로 유지관리 해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- 이후, 현장점검을 마치고, “코레일의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전면 혁신한다는 목표하에, 업무의 효율성과 작업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위주의 업무방식을 자동화·첨단화하고, 데이터에 기반한 선진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  - 아울러, “작년 철도사고가 빈번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, 철도안전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으며, 부사장 중심으로 간부진이 일치단결하여 철도 안전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3. 5.

국토교통부 대변인